민주통합 경선, '2순위표'를 잡아라

64만 시민선거인단 향방 초미 관심사…'박남매' 용어 사용 구애도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구도에서 1인2표제에 따른 2순위표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선거인단 규모가 지난 6일 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시민 참여가 대박이 나면서 2순위표의 흐름은 더욱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각 후보 캠프에서도 2순위표 분석 및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지만 결론은 오리무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후보자 간에 2순위표를 주고받는 합종연횡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재 당내 선거 전략가들은 지난 7일까지 64만3353명에 달한 시민선거인단 가운데 20만명 정도를 후보자들이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동원된 선거인단도 이처럼 숫자가 너무 많아 2순위표에 대해 이른바 오더를 내려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표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대의원 표의 경우도 합종연횡이 예전만큼 위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그럼에도 선거전 막판에는 후보자들 간 합종연횡은 활발해지고 커트라인에 몰려 있는 후보자들의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번표를 위한 후보자 간 구애도 벌어지고 있다. 박지원 후보는 합동연설회 등에서 '박남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박영선 후보 지지자들의 표를 노리고 있다.

아예 공개적으로 2번표 전략에 올인하는 후보도 나타나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대표가 될 훌륭한 사람을 1번으로 찍어주고, 진보적인 청년장수가 될 수 있는 저에게 2번째 표를 고민하지 말고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후보자들은 최근 2번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언론과 소셜네느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공중전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2번표가 대중성, 인지도, 정책과 이미지의 선명성에 갈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민선거인단은 본인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후보들에게 2번표를 던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시민선거인단 가운데 무리가 크고 비슷한 성향을 지닌 집단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

2순위표 가운데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노총 조합원과 정봉주 전 의원의 실형 확정에 따른 반발로 시민선거인단에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 등이 주요 타깃이다.

한노총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어 지지 후보의 선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통합당 대구·경북 지역위원장과 19대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들이 8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호남지역 민주통합당 당원과 호남지역민에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지도부 경선에 나선 김부겸 의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檢 "디도스 배후 없다"…결국 특검으로

민주통합당 오늘 특검법안 제출키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발생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오는 9일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8일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감추고 은폐함으로써 도토리 키재기 수사를 했다. 몸통은 커녕 꼬리도 제대로 못찾은 '0점' 짜리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은 특검법안을 마련한 뒤 소속 의원 89명 전원의 명의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디도스 검찰수사 국민검증위원회(위원장 이준석 비대위원)'의 검증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으나 이 위원장은 이미 특검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검찰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또 "검찰이 최선을 다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국민이 신뢰를 안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은 특검을 무조건 수용하고, 시민의 기대에 맞도록 특별검사진 구성에 대한 야당의 안이 나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디도스 국민검증위원장으로서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 수용 필요성을 말했고 황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며 "특검 추진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시민 "나도 금품살포 경험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는 6일 "(정당 내에서) 금품살포를 목격한 바도, 경험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유 공동대표는 이날 대전시당 출범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의 지도부가 되려고 하면 권력이 따라오니 부정한 수단을 쓰려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정당은 진성당원이 없어서 대의원을 돈으로 지명했던 것이 반세기 동안의 일"이라며 "개개인의 잘못된 점도 있고 당 운영방식도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정희 공동대표도 "한나라당이 몇몇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어디 한 사람에게만 돈을 줬겠는가"라며 "한나라당 전체가 검찰에 가야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대표는 또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의 멘토 가운데 한 명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에 갔다"며 "야권연대에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이 정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권 위에서 군림하는 특권 세력을 해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이라며 "양극화된 세대간, 계층간, 사회간 균형을 회복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이낙연, 출판기념회 7천여명 참석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장성)은 7일 오후 장성군 홍길동 체육관에서 지역민과 정치인, 각계 인사 등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은 죽지 않는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재균·김동철·박주선·이용섭·장병완·김성곤·이윤석·최인기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통합당 당권 주자로 나선 한명숙·문성근 후보를 비롯한, 김두관·송영길·안희정 등 광역단체장들은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 이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이 의원은 저자 인사말을 통해 " 앞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 헌신함은 물론 특히 함평·영광·장성을 연계해 산업과 관광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 전남 서부권 발전 전략의 토대를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만호, 출판기념회 대성황

지난 7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박만호 전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의 자전적 에세이 '땀방울이 모여 꿈을 이룬다'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통합당 이윤석·이용섭 국회의원과 서삼석 전 군수와 전·현직 도의원, 군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전 국장은 출판기념회에서 "공직자로서 행정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역량, 열정과 혼을 마음껏 고향의 미래를 위해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을로, 순천 보선 출마 선언

민주통합당 송을로(49) 고은빛치과원장이 지난 6일 순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순천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민이 주도하는 정치개혁과 선거풍토를 혁신하는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컨소시엄 방식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박람회장을 테마공원으로 조성,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y@

김효석 "안철수, 탈이념적 진보주의자"

'세번째 희망…' 출판기념회서 '정치적 가능성' 강조

4월 총선에서 서울 강서 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김효석 의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탈이념적 진보주의자'로 규정하고 정치적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세번째 희망을 찾아'라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시대의 요청이라는 부름 앞에 서 있는 고독한 휴머니스트"라며 안 원장과 대담을 나눈 인상을 이같이 표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 원장은 국민의 자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변혁을 위해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강서 을 출마와 관련, "강남, 서초 등에서 싸우는 것도 검토했지만 저보다 더 대표성있는 분이 나갈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갑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으나 3·1절 특사로 나올 것을 기대해 고사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 대구·경북 위원장·총선 출마자들 광주서

"지역구도 타파·김부겸 지지" 호소

민주통합당 대구·경북 지역위원장과 제19대 총선 출마자들이 8일 광주에서 '지역구도 극복'과 당 지도부 경선에서 출마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통합당 대구·경북지역 총선예비후보들과 당 관계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3선 지역구인 경기 군포를 포기한 채 한나라당 일당 독재를 깨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대구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후보를 호남에서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 대구 출마를 선언한 것은 결단을 넘어 정치적 도박 또는 무모한 도전일 수 있지만, 민주당의 간판으로 당당히 심판받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향을 선택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호남에서 사랑받는 최고위원이 돼 오는 4월 총선에서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역구도를 극복하지 않고, 영호남의 장벽을 허물지 않고는 민주통합당이 성공할 수 없다"며 "김부겸이 지역주의라는 벽을 넘을 수 있도록 호남지역 당원과 지역민이 격려와 용기를 달라" 고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전국 남녀 노동자농민 대표자 모집 및

농민당조직 전당대회

| 일 시 | 2012년 1월 20일(금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청풍원 휴게소
(회비 : 35,000원)

농민당 당규

1) 본당은 농민당이라한다.
2) 농민당은 노동자농민 및 국민들로 조직한다.
3) 당 대표를 1명 두어 회장으로한다.
4) 부회장에 남여 1명씩 두어 회장 유고시 회장책임을 대행한다
5) 당내 원내대표를 1명두어 대외 책임을 진다, 당의 대변을 한다.
6) 당내 최고위원을 두어 모든사업 목표를 정하고 당원은 이를 실천한다.
최고위원은 간부 및 도당대표를 정하고 이들은 당사업 목표를 실천한다.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2012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 자격취득!!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2년 2월 20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2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1년 12월 1일(목) ~ 2012년 1월 13일(금)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2년 1월13일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번지 광신대학교 교학처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1년에 1,700,000원 : 2011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크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이어야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